

문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독서 실태 분석 연구: A대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Reading of Major Subject Books by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a University

이 종 문(Jong-Moon Lee)**

주 용 국(Yong-Kook Joo)***

<목 차>

I. 서론	1. 독서역량 수준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전공독서 실태
II. 연구 방법	IV. 결론 및 제언
1. 조사대상 및 방법	1. 결론
2. 조사 도구	2. 제언
III. 연구 결과	

초 록

본 연구는 A대학교 문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서역량과 전공독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A대학교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녀 학생 457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과별 독서역량에 집단 간 어휘력과 독해력, 속독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공독서 실태에서는 전체 학과에서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이 66.9%에 달하고, 그 이유가 교재만으로 수업과 과제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67.7%)이 많았다. 셋째 전체 전공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82.1%가 15권미만이고, 11.3%가 1권 미만으로 나타났다. 일주일간의 전공독서시간이 5시간미만 68.9%, 10시간미만 13.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독서역량 학과 간 편차, 전공독서 여부 및 독서량, 시간 등)를 토대로, 전공독서의 양과 질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독서, 전공독서, 독서역량, 독서실태, 문과 대학생

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academic reading, to explore basic issues in their reading, and to provide how to improve their academic reading in their major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457 students who enrolled in a college of liberal arts in a university. The study results represented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and fast-reading competence among student groups of different majors. Secondly, 66.9% of the students did not read widely in their major subjects throughout all departments. 67.7% of the students with low reading performance responded that they could complete college courses only with course textbook reading, course participation, and requirement submission. Thirdly, regarding the number of major subject books that the participants read, 82.1% of the students read less than 15 books, while 11.3% read less than a book. The students' academic reading hours during per week were less than 5 hours for 68.9% students and less than 10 hours for 13.9%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departmental differences in reading competence, wide reading in major subject books, and liberal arts students' reading hours), liberal arts colleges need to design programs to guarantee quality and quantity in reading major subject books.

Keywords: Reading, Academic reading of major subject books, Reading competence, Actual reading condition,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자기주도 전공 및 진로독서 학습모형 개발 특별연구” 중 전공독서 분야대상으로 동 연구소의 2015년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문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독서 실태분석 연구: A대학교를 중심으로”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mlee@ks.ac.kr) (제1저자)

***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yongkookjoo@k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11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9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2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49-165,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1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서의 정의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독서 작용(사고융합, 간정이입 등)을 통해 내면화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 합리성 있는 인식과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갖게 하는 것, 그런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에 공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는 그 정의에서 보듯 ① 유용한 지식을 전달받는 수단으로서, ② 합리성 있는 사상과 감정을 갖게 하는 방법론으로서, ③ 합리적 인식과 태도,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④ 창의적 사고력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독서량과 독서역량이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있듯 그것이 교양독서든 전공독서든 독서는 양적으로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또한 질적으로 독서작용을 통해 받아들인 지식을 내면화하여 유용성을 창출해 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독서준비성 내지 독서능력요소 등으로 일컬어지는 독서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독서역량이 부족하면 인간과 그 사회가 문화와 삶을 영위하고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 받아들인 지식을 내면화하여 합리성 있는 인식과 태도를 갖는 일,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는 일 등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개인과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OECD가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와 국제성인역량조사를 통해 독서역량을 평가하고 있고, 각국은 대학수학과 관련해서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을 통해 독서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통해 사고력 등을 기반으로 어휘력, 읽기능력, 문장완성, 비평적 독해력 등을, 한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어휘력,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태는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조사한 국민독서 실태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9.1권(학생은 29.8권)으로 나타날 정도로 독서량이 낮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조사한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을 보면(강홍구 외 2015), 연평균 대출도서 수가 4년제 대학도서관은 1명당 연평균(2010-2014년, 5년간) 평균 10권으로, 전문대학 도서관은 평균 2권으로 집계될 정도로 대출 수가 작다. 그럼에도 표집된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매체활용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김선남, 강혜영 2007), 독서시간은 일주일에 131분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활용 시간은

하루에 138분, TV 시청 시간은 하루에 86분에 이를 정도로 독서에 할애되는 시간이 낮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OECD 국가 중 대학생독서량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이경민 2012).

한국인의 독서역량 수준은 2012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의하면 15세는 세계 1~2위이지만, 「2013년 OECD 국제성인역량평가조사(PIAAC)」 주요 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16~24세는 22개 회원국 중 3위, 55~65세의 읽기 능력은 20위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독해력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종문(2010, 24-25)이 대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시 지문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이 일반 고등학생 평균 소요시간을 초과한 학생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해력과 기억력도 각각 9%와 12%의 학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일부 대학들이 교양과 전공수업의 수학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예를 들면, 창신대학교(2014, 4)는 “Reading으로 크는 창의적 Leade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학기 말 독서량을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고 졸업시점에 평가등급을 구분하여 B등급 이상은 ‘Gold 독서인증서’, 그 외 C등급에 대해서는 ‘Silver 독서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여러 대학들이 추천독서제도, 독서인증제도, 독서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양과 전공독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직 많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독서 역량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련 조사들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독서실태와 독서역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간의 연구를 보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대학교 문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독서 실태와 독서역량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로 교양독서와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서역량은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독서역량 요인을 어휘력, 독해력, 비판능력, 추론능력, 기억력, 속독력으로 구분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였다. 전공독서는 전공 독서여부, 미독서 이유, 전공독서의 목적, 전공독서의 매체 유형, 전공 독서량과 전공독서별 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문과대학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역량과 전공독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는 향후 대학생들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전공독서 계획수립에 중요한 참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계통추출법에 의해 표집된 A대학교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4년 10월 22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5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에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곤란한 15부를 제외한 45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57)		
	구분	빈도	백분위(%)	누적백분위(%)
성별	남	148	32.4	32.4
	여	309	67.6	100.0
학년	1학년	126	27.6	27.6
	2학년	98	21.4	49.0
	3학년	134	29.3	78.3
	4학년	99	21.7	100.0
학과	국어국문학과	22	4.8	4.8
	영어영문학과	43	9.4	14.2
	독일지역학과	48	10.5	24.7
	프랑스지역학과	19	4.2	28.9
	일어일문학과	40	8.8	37.6
	한문학과	21	4.6	42.2
	사학과	47	10.3	52.5
	철학과	35	7.7	60.2
	문헌정보학과	33	7.2	67.4
	교육학과	28	6.1	73.5
	유아교육과	49	10.7	84.2
	윤리교육과	36	7.9	92.1
중국학과	36	7.9	100.0	
학점	2.0 미만	13	2.8	2.8
	2.0 ~ 2.5 미만	26	5.7	8.5
	2.5 ~ 3.0 미만	73	16.0	24.5
	3.0 ~ 3.5 미만	139	30.4	54.9
	3.5 ~ 4.0 미만	125	27.4	82.3
	4.0 이상	81	17.7	100.0

2. 조사 도구

가. 독서역량

독서를 위해서는 독서역량으로 일컬어지는 독서준비성(Reading Readiness)이 필요하다. 독서 준비성 요소를 살펴보면, 손정표(2015)는 독서행동 연구를 통해 독서단계를 인지단계, 독해단계, 독자반응단계, 신규 사고의 융합단계 등 4단계로 분석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독서역량 요소를 파악해 보면, 독서는 인지능력, 독해능력, 이해력, 사고력 등 역량이 필요하다. 결국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보면, 독서에 필요한 역량 요소는 기본적으로 어휘력, 독해력, 비판능력, 추론능력, 기억력, 속독력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독서역량을 6가지 하위요인(어휘력, 독해력, 비판능력, 추론능력, 기억력, 속독력)으로 구성하였다.

나. 전공독서

전공(special study)이란 어떤 학문분야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공독서란 전공학습과 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자료를 독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전공독서는 어떤 학문분야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그 이론과 실체에 대한 관련 책을 읽고 이해하여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고 융합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공 독서여부, 전공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전공독서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목적, 전공독서의 매체 유형, 전공 독서량과 전공 독서시간별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자료의 독서 실태를 조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독서역량 수준

본 연구의 문과대 학생의 학과별 독서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학과별 독서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기초로 학과별 독서역량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과별 평균을 비교하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표 2〉 학과별 독서역량의 평균, 표준편차

(N=457)

학과	인원	독서 어휘력	독해력	비판력	추론능력	내용 기억력	속독력
		M(SD)	M(SD)	M(SD)	M(SD)	M(SD)	M(SD)
국어국문학과	22	3.27(.63)	3.23(.61)	2.91(.75)	2.91(.53)	2.91(.68)	3.14(.77)
영어영문학과	43	2.93(.67)	3.05(.65)	2.77(.84)	3.00(.76)	3.26(.88)	2.70(.77)
독일지역학과	48	2.73(.96)	2.88(.84)	2.88(.87)	2.94(.73)	3.13(.87)	2.83(.78)
프랑스지역학과	19	2.53(.96)	2.63(1.12)	2.42(.77)	2.42(.77)	2.95(.52)	2.47(.90)
일어일문학과	40	3.18(1.03)	3.15(1.00)	3.00(.91)	2.98(.89)	3.30(1.04)	3.00(1.09)
한문학과	21	2.95(.74)	2.95(.80)	2.76(.94)	2.71(.72)	2.86(.79)	2.43(.75)
사학과	47	3.15(.78)	3.19(.80)	3.04(.93)	3.09(.86)	3.26(.92)	3.11(.98)
철학과	35	3.09(.78)	3.11(.80)	3.03(.89)	2.97(.82)	2.89(.83)	2.83(.82)
문헌정보학과	33	3.24(0.61)	3.42(.61)	2.91(.72)	3.18(.53)	3.21(.86)	3.33(.92)
교육학과	28	3.29(0.60)	3.25(.65)	2.93(.90)	2.93(.77)	2.93(.77)	3.04(1.00)
유아교육과	49	3.39(0.70)	3.51(.71)	3.06(.83)	3.04(.82)	3.31(.80)	3.31(.80)
윤리교육과	36	2.94(0.67)	3.14(.72)	2.83(.81)	2.92(.73)	2.97(.74)	2.97(.65)
중국학과	36	3.14(0.83)	3.06(.89)	2.75(1.00)	2.81(.92)	3.31(1.09)	3.11(.98)
합계	457	3.08(0.81)	3.14(.81)	2.89(.87)	2.95(.78)	3.13(0.87)	2.98(.90)

〈표 3〉 학과별 독서역량의 차이

(N=457)

독서역량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독서어휘력	집단-간	21.92	12	1.83	2.96**
	집단-내	274.40	444	0.62	
	합계	296.32	456		
독해력	집단-간	19.69	12	1.64	2.62**
	집단-내	278.06	444	0.63	
	합계	297.75	456		
비판능력	집단-간	9.74	12	0.81	1.08
	집단-내	333.22	444	0.75	
	합계	342.96	456		
추론능력	집단-간	10.51	12	0.88	1.45
	집단-내	268.23	444	0.60	
	합계	278.74	456		
내용기억력	집단-간	12.81	12	1.07	1.44
	집단-내	330.04	444	0.74	
	합계	342.86	456		
속독력	집단-간	27.86	12	2.32	3.04***
	집단-내	338.88	444	0.76	
	합계	366.74	456		
전체	집단-간	412.74	12	34.40	2.40**
	집단-내	6361.94	444	14.33	
	합계	6774.69	456		

** $p < .01$, *** $p < .001$

<표 3>과 같이 학과별 독서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F(1, 22)=2.40$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 하위영역에서는 독서어휘력에서 $F(1, 22)=2.96$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독해력에서 $F(1, 22)=2.63$ 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속독력에서도 $F(1, 22)=3.04$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비판능력, 추론능력, 내용기억력에서는 독서역량에서 학과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전공독서 실태

문과대학생의 교재를 제외한 전공독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공서적의 독서여부, 독서의 목적, 독서유형, 독서량, 독서시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전공과 관련 자료(책, 콘텐츠) 독서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전공과 관련된 자료 독서 여부

학과	독서하지 않고 있다		독서하고 있다		전체	
	n(%)	n(%)	n(%)	n(%)	n(%)	n(%)
국어국문학과	18(81.8)	4(18.2)	22(100.0)			
영어영문학과	32(74.4)	11(25.6)	43(100.0)			
독일지역학과	30(62.5)	18(37.7)	48(100.0)			
프랑스지역학과	14(73.7)	5(26.3)	19(100.0)			
일어일문학과	26(65.0)	14(35.0)	40(100.0)			
한문학과	15(71.4)	6(28.6)	21(100.0)			
사학과	21(44.7)	26(55.3)	47(100.0)			
철학과	22(62.8)	13(37.2)	35(100.0)			
문헌정보학과	24(85.7)	9(14.3)	33(100.0)			
교육학과	20(71.4)	8(28.6)	28(100.0)			
유아교육과	34(69.4)	15(30.6)	49(100.0)			
윤리교육과	28(77.8)	8(22.2)	36(100.0)			
중국학과	22(61.1)	14(38.9)	36(100.0)			
전체	306(66.9)	151(32.1)	457(100.0)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를 제외한 전공 관련 자료 독서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문과대학 전체 학과에서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66.9%)가 '독서를 하고 있다'(32.1%) 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대학생의 상당수가 전공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문화일보 2006), 인터넷 신문 미디어캠퍼스가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2006년 전국의 대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1명은 2005년 단 1권의 책(전공서적과 잡지 제외)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충청지역 대학生の 독서실태 조사한 것을 보면 교양독서에 해당하는 소설이 전체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반면, 전공독서에 해당하는 인문과학도서(5%), 예술관련 도서(2%), 자연과학도서(1%)의 독서율 낮았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문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제외하고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전공 관련 자료를 독서하지 않는 이유

(복수 응답, N=306)

학과	독서하고 있지 않음 전체 n(%)	교재만으로 수강가능 n(%)	과제가능 n(%)	시간부족 n(%)	자료부족 n(%)	기타 n(%)
국어국문학과	18(100.0)	10(55.6)	2(11.1)	9(5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32(100.0)	19(59.3)	3(9.4)	13(40.6)	2(6.3)	1(3.1)
독일지역학과	30(100.0)	19(63.3)	7(23.3)	7(23.3)	1(3.3)	3(10.0)
프랑스지역학과	14(100.0)	5(35.7)	2(14.3)	5(35.7)	1(7.1)	2(14.2)
일어일문학과	26(100.0)	11(42.3)	5(19.2)	10(38.5)	3(11.5)	2(7.7)
한문학과	15(100.0)	8(53.3)	2(13.3)	6(40.0)	0(0.0)	1(6.7)
사학과	21(100.0)	8(38.1)	2(9.5)	10(47.6)	0(0.0)	2(9.5)
철학과	22(100)	7(31.8)	4(18.8)	11(50.0)	1(4.5)	3(13.6)
문헌정보학과	24(100.0)	11(45.8)	3(12.5)	12(50.0)	3(12.5)	1(4.2)
교육학과	20(100.0)	8(40.0)	6(30.0)	8(40.0)	0(0.0)	1(5.0)
유아교육과	34(100.0)	21(61.8)	9(26.5)	15(44.1)	1(2.9)	0(0.0)
윤리교육과	28(100.0)	16(57.1)	4(14.3)	10(35.7)	2(7.1)	1(3.6)
중국학과	22(100.0)	9(40.9)	6(27.3)	9(40.9)	2(9.1)	2(9.1)
전 체	306(100.0)	152(49.7)	55(18.0)	125(40.8)	16(5.2)	19(6.1)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 관련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306명의 학생들 중 ‘교재만으로도 전공수업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152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간부족’ 125명(40.8%), ‘교재만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하다’ 55명(18.0%), 기타(6.1%), 마지막으로 ‘자료부족’ 16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별에서도 대부분 같은 순으로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선택하였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제외한 전공 관련 자료 독서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 관련 독서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151명의 학생들 중 ‘전공과제수행을 위하여’가 75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공 기초소양을 쌓기

〈표 6〉 전공 관련 자료(교재 제외)의 독서 목적

(복수 응답, N=151)

학과	독서하고 있다 전체	기초소양	심화학습	과제수행	기타
	n(%)	n(%)	n(%)	n(%)	n(%)
국어국문학과	4(100.0)	2(50.0)	0(0.0)	1(25.0)	2(50.0)
영어영문학과	11(100.0)	2(18.2)	2(18.2)	8(72.7)	1(9.1)
독일지역학과	18(100.0)	10(55.6)	3(16.7)	7(38.9)	2(11.1)
프랑스지역학과	5(100.0)	3(60.0)	2(4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4(28.6)	11(78.6)	5(35.7)	1(7.1)
한문학과	6(100.0)	3(50.0)	1(16.7)	4(66.7)	0(0.0)
사학과	26(100.0)	11(42.3)	9(34.6)	17(65.4)	6(23.1)
철학과	13(100.0)	6(46.2)	3(23.1)	6(46.2)	1(7.7)
문헌정보학과	9(100.0)	6(66.7)	2(22.2)	4(44.4)	1(11.1)
교육학과	8(100.0)	1(12.5)	4(50.0)	6(75.0)	1(12.5)
유아교육과	15(100.0)	5(30.0)	6(40.0)	8(53.3)	1(6.7)
윤리교육과	8(100.0)	2(25.0)	4(50.0)	3(37.5)	0(0.0)
중국학과	14(100.0)	5(35.7)	9(64.3)	6(42.9)	0(0.0)
전 체	151(100.0)	60(39.7)	56(37.7)	75(50.0)	16(10.6)

〈표 7〉 전공 관련 독서 매체자료

(복수 응답, N=151)

학과	독서하고 있다 전체	종이매체 (종이책)	전자자료 (전자책, 디지털콘텐츠)
	n(%)	n(%)	n(%)
국어국문학과	4(100.0)	4(100.0)	1(25.0)
영어영문학과	11(100.0)	11(100.0)	4(36.3)
독일지역학과	18(100.0)	14(77.8)	10(55.6)
프랑스지역학과	5(100.0)	5(100.0)	5(1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13(92.9)	10(71.4)
한문학과	6(100.0)	6(100.0)	2(33.3)
사학과	26(100.0)	17(65.4)	9(34.6)
철학과	13(100.0)	8(61.5)	5(38.5)
문헌정보학과	9(100.0)	9(100.0)	8(88.9)
교육학과	8(100.0)	8(100.0)	6(75.0)
유아교육과	15(100.0)	8(53.3)	10(66.7)
윤리교육과	8(100.0)	8(100.0)	4(50.0)
중국학과	14(100.0)	7(100.0)	9(64.3)
전 체	151(100.0)	126(83.4)	82(54.3)

위하여' 60명(39.7%), '전공내용의 심화학습을 위하여' 56명(37.7%), 마지막으로 '기타의견' 16명(10.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과별 응답순위는 각 학과마다 다른 특징을 보였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제외한 어떤 매체자료를 독서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를 제외한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51명 중 종이매체(종이책) 이용은 126명(83.4%)이며, 전자자료(전자책, 디지털콘텐츠) 이용은 82명(54.3%)로 나타났다. 각 학과의 경우에도 유아교육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종이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어떤 유형의 자료로 독서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전공 관련 독서자료 유형

(복수응답, N=151)

학과	독서하고 있다 전체, n(%)	단행본 n(%)	학술논문 n(%)	오디오 n(%)	동영상 n(%)	기타 n(%)
국어국문학과	4(100.0)	2(50.0)	2(50.0)	0(0.0)	1(25.0)	0(0.0)
영어영문학과	11(100.0)	11(100.0)	1(9.1)	2(18.2)	4(36.4)	0(0.0)
독일지역학과	18(100.0)	16(88.9)	4(22.2)	1(5.6)	6(33.3)	0(0.0)
프랑스지역학과	5(100.0)	5(100.0)	1(20.0)	2(40.0)	5(1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14(100.0)	8(57.1)	4(28.6)	10(71.4)	0(0.0)
한문학과	6(100.0)	5(83.3)	3(50.0)	1(16.6)	2(33.3)	0(0.0)
사학과	26(100.0)	16(61.5)	6(23.1)	4(15.4)	6(23.1)	3(11.5)
철학과	13(100.0)	10(76.9)	2(15.4)	0(0.0)	0(0.0)	0(0.0)
문헌정보학과	9(100.0)	9(100.0)	4(44.4)	1(11.1)	5(55.6)	1(11.1)
교육학과	8(100.0)	8(100.0)	1(12.5)	1(12.5)	3(37.5)	0(0.0)
유아교육과	15(100.0)	8(53.3)	3(20.0)	1(6.7)	4(26.7)	3(20.0)
윤리교육과	8(100.0)	8(100.0)	1(12.5)	0(0.0)	4(50.0)	0(0.0)
중국학과	14(100.0)	7(50.0)	5(35.7)	1(7.1)	3(21.4)	0(0.0)
전 체	151(100.0)	134(88.7)	41(27.1)	18(11.9)	54(35.8)	7(4.6)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 관련 독서유형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151명의 학생들은 '단행본자료' 134명(8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영상자료' 54명(35.8%), '학술논문자료' 41명(27.1%), '오디오자료' 18명(11.9%) 마지막으로 '기타자료' 7명(4.6%),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학과별에서도 단행본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9> 콘텐츠별 전공 관련 독서량

(N=151)

유형	학과	전체 n(%)	1미만 n(%)	5권미만 n(%)	10권미만 n(%)	20권미만 n(%)	20권이상 n(%)
단 행 본	국어국문학과	4(100.0)	0(0.0)	3(75.0)	1(25.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1(100.0)	1(9.1)	8(72.7)	2(18.2)	0(0.0)	0(0.0)
	독일지역학과	18(100.0)	3(16.7)	15(83.3)	0(0.0)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5(100.0)	0(0.0)	5(10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1(7.1)	8(57.1)	4(28.6)	1(7.1)	0(0.0)
	한문학과	6(100.0)	2(33.3)	3(50.0)	1(16.7)	0(0.0)	0(0.0)
	사학과	26(100.0)	4(15.4)	15(57.7)	5(19.2)	1(3.8)	1(3.8)
	철학과	13(100.0)	3(23.1)	9(68.2)	1(7.7)	0(0.0)	0(0.0)
	문헌정보학과	9(100.0)	2(22.2)	5(55.6)	2(22.2)	0(0.0)	0(0.0)
	교육학과	8(100.0)	3(37.5)	4(50.0)	1(12.5)	0(0.0)	0(0.0)
	유아교육과	15(100.0)	3(20.0)	10(66.7)	1(6.7)	1(6.7)	0(0.0)
	윤리교육과	8(100.0)	1(12.5)	7(87.5)	0(0.0)	0(0.0)	0(0.0)
	중국학과	14(100.0)	4(28.6)	7(50.0)	2(14.3)	1(7.1)	0(0.0)
	전체	151(100.0)	27(17.9)	99(65.6)	20(13.2)	4(2.6)	1(.6)
학 술 논 문	국어국문학과	4(100.0)	4(100.0)	0(0.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1(100.0)	10(90.9)	1(9.1)	0(0.0)	0(0.0)	0(0.0)
	독일지역학과	18(100.0)	13(72.2)	5(27.8)	0(0.0)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5(100.0)	4(80.0)	1(2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7(50.0)	6(42.9)	1(7.1)	0(0.0)	0(0.0)
	한문학과	6(100.0)	1(16.7)	4(66.7)	1(16.7)	0(0.0)	0(0.0)
	사학과	26(100.0)	13(50.0)	8(30.8)	3(11.5)	2(7.7)	0(0.0)
	철학과	13(100.0)	8(61.5)	4(30.8)	0(0.0)	1(7.7)	0(0.0)
	문헌정보학과	9(100.0)	6(66.7)	1(11.1)	2(22.2)	0(0.0)	0(0.0)
	교육학과	8(100.0)	4(50.0)	4(50.0)	0(0.0)	0(0.0)	0(0.0)
	유아교육과	15(100.0)	11(73.3)	2(13.3)	2(13.3)	0(0.0)	0(0.0)
	윤리교육과	8(100.0)	7(87.5)	1(12.5)	0(0.0)	0(0.0)	0(0.0)
	중국학과	14(100.0)	11(78.6)	3(21.4)	0(0.0)	0(0.0)	0(0.0)
	전체	151(100.0)	99(65.6)	40(26.4)	9(6.0)	3(2.0)	0(0.0)
여 타 콘 텐 츠	국어국문학과	4(100.0)	4(100.0)	0(0.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1(100.0)	8(72.7)	3(27.3)	0(0.0)	0(0.0)	0(0.0)
	독일지역학과	18(100.0)	12(66.7)	6(33.3)	0(0.0)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5(100.0)	5(100.0)	0(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8(57.1)	3(21.4)	1(7.2)	2(14.3)	0(0.0)
	한문학과	6(100.0)	5(83.3)	1(16.7)	0(0.0)	0(0.0)	0(0.0)
	사학과	26(100.0)	15(57.7)	7(26.9)	2(7.7)	0(0.0)	2(7.7)
	철학과	13(100.0)	12(92.3)	1(7.7)	0(0.0)	0(0.0)	0(0.0)
	문헌정보학과	9(100.0)	8(88.9)	0(0.0)	0(0.0)	0(0.0)	1(11.1)
	교육학과	8(100.0)	5(62.5)	3(37.5)	0(0.0)	0(0.0)	0(0.0)
	유아교육과	15(100.0)	9(60.0)	2(13.3)	3(20.0)	1(6.7)	0(0.0)
	윤리교육과	8(100.0)	8(100.0)	0(0.0)	0(0.0)	0(0.0)	0(0.0)
	중국학과	14(100.0)	12(85.8)	1(7.1)	0(0.0)	1(7.1)	0(0.0)
	전체	151(100.0)	111(73.5)	27(17.9)	6(4.0)	4(2.6)	3(2.0)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전공 관련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는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를 제외한 단행본, 학술논문과 여타 콘텐츠에 대한 학기당 독서 권수를 살펴보면 단행본은 5권미만 99명(65.6%), 1권미만 27명(17.9%), 10권미만 20명(13.2%), 20권미만 4명(2.6%), 20권이상 1명(0.6%)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술논문은 1권미만 99명(65.6%), 5권미만 40명(26.4%), 10권미만 9명(6.0%), 20권미만 3명(2.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타 콘텐츠는 1권미만 111명(73.5%), 5권미만 27명(17.9%), 10권미만 6명(4.0%), 20권미만 4명(2.6%), 20권이상 3명(2.0%)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학기당 1권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제외한 학기 당 전체 전공 관련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교재 제외한 전체 전공 관련 독서량

유형	학과	(N=151)					
		전체 n(%)	1권 미만 n(%)	15권 미만 n(%)	30권 미만 n(%)	60권 미만 n(%)	60권 이상 n(%)
전 체 전 공 독 서 량	국어국문학과	4(100.0)	0(0.0)	4(100.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1(100.0)	2(18.2)	9(81.8)	0(0.0)	0(0.0)	0(0.0)
	독일지역학과	18(100.0)	3(16.7)	15(83.3)	0(0.0)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5(100.0)	0(0.0)	5(10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1(7.1)	12(85.7)	0(0.0)	1(7.1)	0(0.0)
	한문학과	6(100.0)	0(0.0)	6(100.0)	0(0.0)	0(0.0)	0(0.0)
	사학과	26(100.0)	3(11.5)	19(73.1)	2(7.7)	0(0.0)	2(7.7)
	철학과	13(100.0)	2(15.4)	11(84.6)	0(0.0)	0(0.0)	0(0.0)
	문헌정보학과	9(100.0)	1(11.1)	7(77.8)	0(0.0)	1(11.1)	0(0.0)
	교육학과	8(100.0)	2(25.0)	6(75.0)	0(0.0)	0(0.0)	0(0.0)
	유아교육과	15(100.0)	1(6.7)	12(80.0)	2(13.3)	0(0.0)	0(0.0)
	윤리교육과	8(100.0)	0(0.0)	7(87.5)	0(0.0)	0(0.0)	1(12.5)
	중국학과	14(100.0)	2(14.3)	11(78.6)	1(7.1)	0(0.0)	0(0.0)
	전체	151(100.0)	17(11.3)	124(82.1)	5(3.3)	2(1.3)	3(2.0)

교재를 제외한 전공 관련 전체 독서량 즉 단행본, 학술논문과 여타콘텐츠를 학기당 독서 총 권수를 살펴보면 15권미만 124명(82.1%), 1권미만 17명(11.3%), 30권미만 5명(3.3%), 60권 이상 3명(2.0), 60권미만 2명(1.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학기당 15권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의 교재를 제외한 전공 관련 독서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일주일 동안의 전공 관련 독서 시간

(N=151)

학과	전체 n(%)	1시간 미만 n(%)	5시간 미만 n(%)	10시간 미만 n(%)	20시간 미만 n(%)	20시간 이상 n(%)
국어국문학과	4(100.0)	0(0.0)	4(100.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1(100.0)	0(0.0)	9(81.8)	1(9.1)	0(0.0)	1(9.1)
독일지역학과	18(100.0)	2(11.1)	13(72.2)	2(11.1)	1(5.6)	0(0.0)
프랑스지역학과	5(100.0)	1(20.0)	4(8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4(100.0)	0(0.0)	4(28.6)	3(21.4)	6(42.9)	1(7.1)
한문학과	6(100.0)	1(16.7)	4(66.7)	1(16.7)	0(0.0)	0(0.0)
사학과	26(100.0)	1(3.8)	20(76.9)	2(7.7)	1(3.8)	2(7.7)
철학과	13(100.0)	2(15.4)	7(53.8)	4(30.8)	0(0.0)	0(0.0)
문헌정보학과	9(100.0)	2(22.2)	5(55.6)	2(22.2)	0(0.0)	0(0.0)
교육학과	8(100.0)	2(25.0)	4(50.0)	2(25.0)	0(0.0)	0(0.0)
유아교육과	15(100.0)	1(6.7)	13(86.6)	1(6.7)	0(0.0)	0(0.0)
윤리교육과	8(100.0)	0(0.0)	7(87.5)	1(12.5)	0(0.0)	0(0.0)
중국학과	14(100.0)	1(7.1)	10(71.4)	2(14.3)	0(0.0)	1(7.1)
전체	151(100.0)	13(8.6)	104(68.9)	21(13.9)	8(5.3)	5(3.3)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를 제외한 일주일의 전공독서시간은 5시간미만 104명(68.9%), 10시간미만 21명(13.9%), 1시간미만 13명(8.6%), 20시간미만 8명(5.3%), 20시간이상 5명(3.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주당 독서시간은 5시간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A대학교 문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서역량과 전공독서 실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서역량 요인을 어휘력,

독해력, 비판능력, 추론능력, 기억력, 속독력으로 구분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전공독서 실태를 전공 독서여부, 미독서 이유, 전공독서의 목적, 전공독서의 매체 유형, 전공 독서량과 전공 독서시간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A대학교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녀 학생 457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별 독서역량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F(1, 22)=2.40$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하위영역에서 어휘력과 독해력, 속독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비판능력, 추론능력, 기억력에서는 학과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전공독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공독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학과에서)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66.9%)가 '독서를 하고 있다'(32.1%)는 응답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교재만으로도 전공수업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49.7%, '시간부족' 40.8%, '교재만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하다' 18.0%, 기타 6.1%, '자료부족' 5.2%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독서의 목적은 '전공과제수행을 위하여'가 50.0%, '전공 기초소양을 쌓기 위하여' 39.7%, '전공내용의 심화학습을 위하여' 37.7%, '기타의견' 10.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독서의 매체 유형은 종이매체 이용은 83.4%이며, 전자자료 이용은 54.3%로 나타났다. 전공독서자료의 유형은 '단행본자료' 88.7%, '동영상자료' 35.8%, '학술논문자료' 27.1%, '오디오자료' 11.9%, '기타자료' 4.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독서량(전공분야 단행본, 학술논문과 여타콘텐츠를 학기당 독서한 권수)은 단행본 5권미만 65.6%, 1권미만 17.9%, 10권미만 13.2%, 20권미만 2.6%, 20권이상 0.6% 순이었으며, 학술논문은 1권미만 65.6%, 5권미만 26.4%, 10권미만 6.0%, 20권미만 2.0% 순으로 파악되었다. 여타 콘텐츠는 1권미만 73.5%, 5권미만 17.9%, 10권미만 4.0%, 20권미만 2.6%, 20권이상 2.0%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학기당 1권미만이 가장 높았다. 전체 전공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15권미만 82.1%, 1권미만 11.3%, 30권미만 3.3%, 60권 이상 2.0%, 60권미만 1.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학기당 15권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일주일간의 전공독서시간은 5시간미만 68.9%, 10시간미만 13.9%, 1시간미만 8.6%, 20시간미만 5.3%, 20시간이상 3.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주당 독서시간은 5시간미만이 가장 높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첫째 독서역량에 학과별 개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휘력, 독해력, 속독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전공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전공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공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이 66.9%에 달하고, 그 이유가 교재만으로도 전공수업 수강이 가

능하다는 것(49.7%)과 시간부족이 40.8%, 교재만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18.0%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전공독서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82.1%가 15권 미만에 머물고 있고, 1권미만이 11.3%에 달하고 있는 것과 일주일간의 전공독서시간이 68.9%가 5시간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다.

2. 제언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그것이 교수학습이든 어떤 일이든 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준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전공수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과 사고융합능력 등 전공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서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학생의 독서역량을 측정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학생의 경우 역량확대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전공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공독서가 필요하고, 교재만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직간접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전공독서를 체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충분한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전공독서의 양과 시간도 질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전공독서의 양과 질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도서관의 관점에서도 전공 역역별 학습자 참여 도서목록 개발, 대학도서관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홍구 외. 2014.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선남, 강혜영. 2007.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 217-240.
- 손정표. 2015.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태일사. [원전 : Gray W.S. 1960. "The Major Aspects of Reading". Sequential Development of Reading Abilities. ed. by Helen M. Robinson(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61-181.
- 이종문. 201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헌 독해능력 평가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17-27.

창신대학교. 2014.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창원: 창신대학교.

문화일보 (2006. 4.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0147293>> [인용 2016. 12. 15]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590&pMenuCD=0406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 [인용 2016. 8. 7].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홈페이지. <<http://piaackorea.krivet.re.kr/news.html>> [인용 2015. 8. 2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shin University, 2014. 2015 recruiting year guidance, Changwon: Changshin University

Kang, Hong-Gu Others. 2014. University Library Statistical 2014 Analysis Kit, Daegu: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im, Sun-Nam, Hye-Young Kang. 2007. "A Study on College Students' Reading Attitudes and Media Utilizatio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6: 217-240.

Lee, Kyung-Min. 2012. "A Study of Reading Education Methods for University Student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61-181.

Lee, Jong-Moon.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Reading Ability for the Literature Read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Freshmen of A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17-27.

Son, Jeong-Pyo, New reading instruction methods, Daegu: Taelisa [Original : Gray W.S. 1960. "The Major Aspects of Reading". Sequential Development of Reading Abilities. ed. by Helen M. Robinson(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The Munhwa Ilbo(2006. 4.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

21&aid=0000147293>[인용 2016. 12. 1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mepage.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590&pMenuCD=0406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

[인용 2016.8.7].

OECD PIAAC Home Page. <<http://piaackorea.krivet.re.kr/news.html>> [cited 2015. 8. 25].